위만주국 중앙은행본점 옛터의 외부 전경

장춘시 력사건축 인증 간판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위만주국 중앙은행본점 옛터

▲ 은행 건물에 잔존한 적군을 포위 섬멸하는 전투에서 장렬히 희생된 조선족 영웅 박락권

▶ 전시된 사진을 통해 옛 기억을 더듬고 있는 로인들

최근 '증언과 재탄생 : 위만주국 중앙은행본점 옛터 특별전'이 장춘시 위만주국 중앙은행본점 옛터에서 막을 올렸다. 한때 식민 지배의 도구였던 이 공간은 현재 중국공상은행 장춘인민광장지점으로 탈바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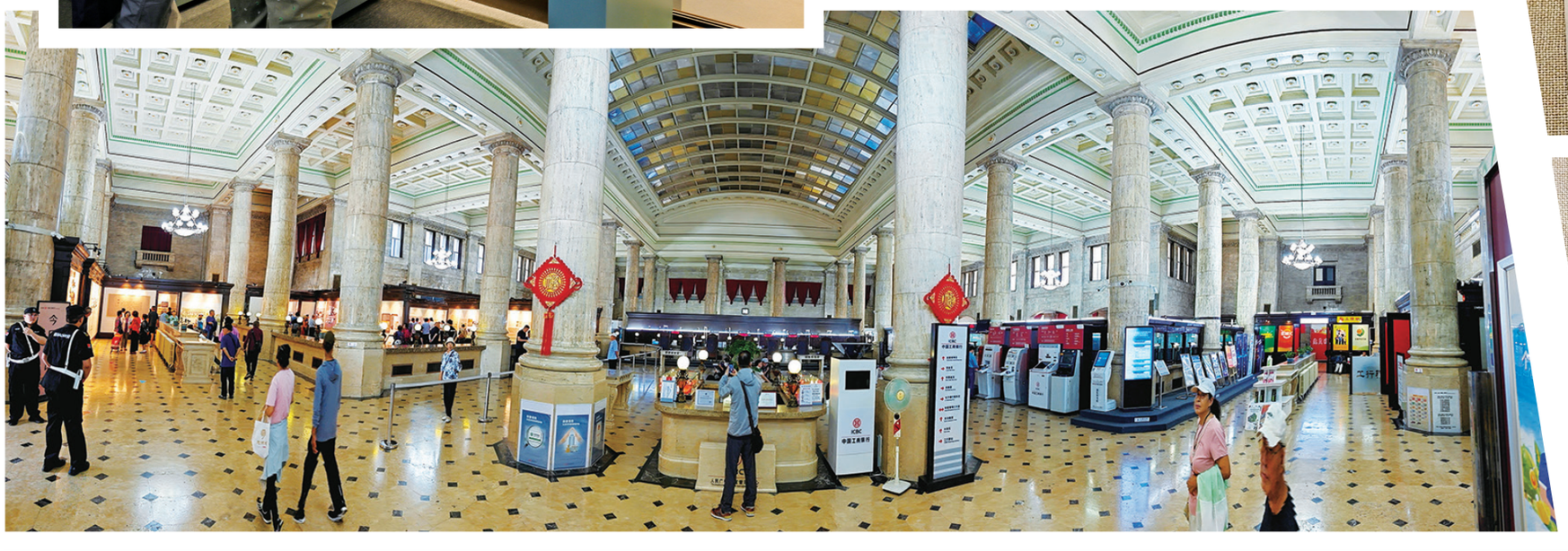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은 식민 지배의 아픈 력사에서 인민 금융기관으로의 파란만장한 변모 려정을 조명하고 전투에서 장렬히 희생된 영렬들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장춘해방전투에서 희생된 박락권(朴洛权)동지의 초상화도 있다.

366평방메터에 달하는 전시 공간은 침략의 고통, 승리의 기쁨 그리고 오늘날의 번영을 생생한 자료로 담아냈다. 력사의 증인이 된 이곳에서 장춘의 백절불굴의 과거와 찬란한 현재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다.

/ 손맹번 류향휘 기자

▲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업무대청

▼ 위만주국 중앙은행본점 옛터의 내부 전경



① 위만주국 중앙은행 본점 시절 사용된 나무상자

② 민국시기 민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지폐를 인쇄하던 사첩초판(私帖钞版)

③ 위만주국 중앙은행 본점에서 발행한 화폐

④ 길림영형관은전호(永衡官银钱号)에서 발행한 금융증빙 소양표(小洋票)

主管 / 主办 : 吉林日报报业集团 出版单位 : 吉林朝鲜文报社 印刷 : 吉林日报社印刷厂 地址 : 长春市绿园区普阳街 2366 号 邮编 : 130011 传真 :87627100 广告许可证 :2200004000046 定价 : 180 元 / 年
编务办 : 87619812 全媒体中心 : 87616700 发行广告管理部 : 87627091 延边记者站 :(0433)2518860 吉林记者站 :13069156625 梅河口记者站 :13604447151 白山记者站 :15143355283 首尔分社 :+82(02)7868089